

사회

‘신종플루’ 국제행사 줄줄이 취소

전남도 ‘하계 영어캠프’ 교사 3명 감염으로 중단

고흥 스페이스캠프 등도 연기...지자체 대책 부심

전남도의 ‘하계 영어체험캠프’ 교사로 참여하기 위해 입국했던 미국인 대학생 3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캠프프로그램 일부가 취소됐다.

이에 앞서 신종플루 확산 우려 때문에 고흥 국제스페이스캠프와 여수 국제청소년축제 등 전남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각종 대형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광주시와 전담도는 신종플루 확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어체험캠프’ 참가를 위해 지난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미주리와 포틀랜드 대학 소속 학생 70명 중 여학생 3명이 신종플루 양성반응으로 확진 받아 현재 모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이들 원어민 학생은 인천공항 입국 당시에는 발열증상이 없었지만, 입국 후 1주일 동안 이뤄진 ‘영어체험캠프’ 사전 교육기간 중 발열과 기침증상을 보여 체질 결과 신종플루로 확진 받았다. 이들 3명 이외에 원어민 여학생 1명과 통역 1명 등 2명도 경미한 발열 증상을 보여 현재 같은 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원어민 학생 66명과 통역 등 인솔자들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8일부터 전남

지역 5개 지역에서 도내 중학생 7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었던 영어체험캠프 1기 교육을 전면 취소했다.

또한,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열릴 예정인 2기 교육도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만환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잠복기간을 감안해 사전교육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려 원어민들의 감염 여부를 매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이 확인됐다”면서 “확진 결과에

따른 추가 잠복 기간을 고려해 2기 교육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9일부터 5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고흥 국제스페이스캠프’도 겨울 방학 기간 중으로 연기됐다. 고흥군은 “나로호” 발사와 스페이스 캠프의 연계성을 고려해 가능한 캠프 일자를 연기하지 않으려 했으나 캠프 참가자들이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청소년인 데다 ‘신종플루’도 급속히 확산돼 캠프 개최를 겨울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수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0회 여수 국제청소년축제도 ‘신종플루’ 확산 가능성 때문에 취소되는 등 하반기 도내 국제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신종플루 확산 속도는 타지역에 비해 그리 심각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유입됐을 경우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지역 ‘신종플루’ 감염 환자는 이번 영어체험캠프 참가 외국인 대학생 3명을 포함해 확진 환자 15명, 추정환자 2명으로 늘었다. 이중 5명은 입원치료 중이고, 12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하계영어체험캠프’의 원어민 교사로 참여한 미국인 대학생 70명 중 5명이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판명되거나 발열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27일 원도내 군외면 전남도청소년수련원에 격리된 나머지 미국인 대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승려가 보살 폭행치사

광양경찰, 40대 영장... 시신 방치 혐의도

광양경찰은 27일 말다툼 끝에 보살을 때려 숨지게 한 승려 K(4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4일 새벽 1시에 광양시 옥곡면 한 사찰에서 보살 B(여·42)씨의 얼굴 등을 소주병으로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B씨와 개인적인 금전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대들자 화기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방에 내버려 두다가 이를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폭우피해 상심 만취 농민

소방차 훔쳐 광란의 질주

영암경찰, 50대 검거

집중폭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50대 농부가 만취상태에서 농기계에 불을 지른 뒤 불을 끄려고 출동한 소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영암경찰은 27일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차를 빼앗은 뒤 광란의 음주 질주를 벌인 이모(51)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영암군 시종면 자신의 집 마당에 세워진 트랙터에 고의로 불을 낸 뒤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흥기로 위협,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5t짜리 진압용 소방차를 7km

가량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도주과정에서 승용차 5대와 순찰차 1대 등 6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논 1만3천223㎡ 가 물에 잠겨 상심한 상태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교통사고로 훔친 소방차가 멈추게 되자 자신을 뒤쫓아온 소방지휘차량을 또 다시 빼앗아 옮겨 타고 달아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 7대와 추격전을 벌이다 50여 분만 붙잡혔다. /영암=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나원침 (7866) 김종두



담양 택시강도 검거

담양경찰은 27일 대출 이자를 갖고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이모(26)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5시30분께 담양군 창평면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 서모(51)씨의 차를 타고 가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서씨를 위협한 뒤 현금과 차량을 빼앗아 타고 달아나 혐의를 받고 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용돈 안준다” 내연남 수표 훔쳐

○평소 용돈을 주지 않던 불만을 품고 자고 있던 내연남의 바지에서 수백만 원의 수표를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서 행.

○2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여·37)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사는 내연남 김모(41)씨의 집에서 김씨의 하의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100만원짜리 2장과 10만원짜리 8장 등 280만원 상당의 수표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김씨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지갑을 몰래 꺼내 가져갔는데, 경찰에서 “박씨가 용돈을 주지 않는데, 평소 불만이 많았었다”고 진술.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재혼 거절 화김에...

노래방 女주인에게 공기총 ‘탕탕’

50대 살인미수 영장

무안경찰은 27일 재혼 문제를 놓고 말다툼 끝에 상대 여성을 공기총으로 살해하려던 윤모(5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경 무안군 청계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목포 모 노래방 주인 K(여·49)씨의 가슴과 팔에 공기총을 두 차례 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이날 K씨에게 “재혼을 하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3개월 전 K씨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뒤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서울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K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윤씨를 붙잡았다.

“구청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수천만원 뒷돈 자치위원장 구속

광주 모 지자체의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을 지낸 70대가 취업을 받기로 수천만원을 받아 청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수사과는 27일 “아들을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기법상 알선수재)로 모 지자체 전 주민자치회장 이모(7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남구 봉선동 모 식당에서 K씨로부터 “빌려간 2천만원을 갚는 대신 아들을 구청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을 갚지 않은데 이어 지난 4월 추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씨가 구청 공무원 A씨

의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모 구청장에게 건넨중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검찰에서 이 돈을 마라톤대회 기금으로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K씨에게) 받은 돈 3천만원도 최근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의 차량을 압수 수색한 결과 자치단체와 정부기관 등 관공서 명함이 다량 발견된 점을 감안해 이런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청소년 등 성매매 알선 출장마사지 업주 영장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청소년 등을 고용, 출장마사지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모(40)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매매 여성 안모(18)양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북구 신안동 0다방에 출장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Advertisement for 'Dongbu Gosihakwon' (동부고시학원) featuring a large banner for a public servant exam (공무원 특채) on October 24th, 2009. The banner includes details about the exam schedule,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Below the banner are smaller ads for 'Chungguhak Academy' (참구학 아카데미) and 'Dongbu Gosihakwon' (동부고시학원) with phone numbers and addresses.